

## 평창올림픽 개최지 철도역사 국민 아이디어로 건설

### - 평창, 진부, 강릉역사 아이디어 공모결과 발표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가 개최되는 평창, 진부, 강릉역 철도역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한 결과 국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적 특색, 상징성이 반영된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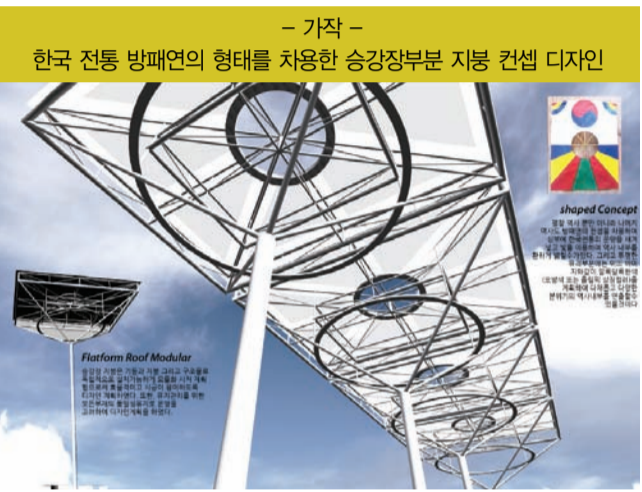
본부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아이디어 공모를 시행해 디자인분야 25건 및 제안분야 22건의 작품을 접수했으며 응모자를 연령별·직업별로 분석한 결과 20대의 대학생이 절반가까이 차지해 젊은 대학생이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다고 전했다.

본부는 지난 26일 강릉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한 외부평가위원 7인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해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결과 디자인분야에서는 강원도의 산을 모티브로 하고 한옥기와를 현대적으로 디자인해 형성화한 작품을 최우수작, 제안분야에서는 빗물을 이용한 친환경 제설시스템 등을 선정했다.

본부 관계자는 “디자인 분야 경우 창의성, 상징성, 시공성, 실용성 등에 중점을 두어 평가했다”며 “입상작에 대해서는 ‘이용자 참여설계 워크숍’을 통해 설계 반영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 구간에 건설 중인 6개 역사는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착공하여 2017년 준공 예정이다.

\* 신축역사 : 만중, 횡성, 둔내, 평창, 진부, 강릉역사



## 주요 철도지선 중앙관제설비 확충

### - 2015년까지 경북선 등 5개 노선 28개역 추가 구축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박인서)는 경북선 등 주요지선 5개노선(경북선, 경전선, 진해선, 여천선, 광양항선 등 28개역)에도 중앙에서 열차를 집중제어할 수 있는 철도교통관제설비 확충사업(96억원)에 이달부터 본격 추진해 내년까지 마쳐 열차 안전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교통관제설비 : 열차의 운행상황을 중앙에서 집중감시 및 제어하는 설비로 구로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감시 및 통제

본부는 사업이 완료하면 ▲철도 교통관제센터에서 열차의 운행현황을 실시간 확인으로 사고 발생시 열차 안전성 확보 ▲열차운행 스케줄 자동관리로 선로이용 효율 향상 ▲현장 운전취급 업무 축소로 업무 효율화 도모 ▲신호설비 정보가 중앙관제센터로 실시간 전달돼 사고예방 및 장애에 대해 신속한 복구 등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본부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국 497개역 중앙관제설비가 구축된 역은 406개역으로(구축율 82%) 열차안전 및 사고대응에 취약한 주요 지선에 대해서 내년까지 28개역을 완료하면 전국 철도망의 88%가 열차 중앙제어가 가능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또 나머지 63개역(12%)은 신규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 반영해 100% 구축을 완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 철도교통관제설비 구축현황(CTC) >

총 대상	기 완료	추가 구축		비고
		'15년 완료	'16년이후	
497역 (100%)	406역(82%) 전국 주요철도 노선 (고속철도, 경부선, 호남선 등)	28역(6%) 경북선(영주~김천, 9역) / 경전선(서광주~원창, 13역) / 진해선(창원~진해, 3역) / 여천선(덕양~적량, 2역) / 광양항선(광양~광양항, 1역)	63역(12%) 동해남부선 / 경원선(동두천~신탄리) / 경전선(진주~광양) / 대구선 등	

## 경의선 강매역 개통 위한 열차운행시험 착수!

### - 이달 25일 개통 예정 -

기술본부(본부장 김상태)는 경기도 고양, 원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강매역 건국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정차시험 및 역사설비점검을 실시한다.

경의선 강매(江梅)역은 화전역과 행신역 사이에 지상 2층, 연면적 2,758㎡ 규모로 신축됐으며, 10월 25일부터 평일을 기준으로 총 154회(서울역46회, 공덕역108회)의 열차가 정차할 계획이다.

강매역은 원래 간이역으로 2009년 경의선 복선전철 개통과 함께 잠시 사라졌으나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고양, 원흥 보금자리 지구 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부활하게 됐다.



## 철도건설현장 안전해법 찾는 '생생한 안전토론회' 개최

### - 소규모 공사현장 등 안전사각지대 해소 -



안전품질실(실장 석종근)은 지난 24일 본사 3층 대회의실에서 철도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도목, 궤도, 전철전력, 신호·통신 분야의 하도급사 등 현장소장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건설현장 안전해법 제를 위한 생생한 안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빈번한 안전사고 관련,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근본적인 사고원인과 문제점을 진단해 대책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자유토론방식으로 진행됐다.

안품질실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설계단계 사전안전성평가 도입 및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 강화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사후조치위주의 안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대책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시행했다.

특히 '건설사업 안전사고 방지 및 현장 안전관리 개선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토론회에서는 전관리비용 현실화, 운행선 열차 감시원의 감시업무 강화를 위한 특별 교육 시행, 선로변 크레인 장비작업 시 장비전도사고 사전예방 방안, 고속 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비계 및 등바리 설치 등의 개선방안이 도출됐다.

안품질실은 토론회에서 나온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관련부서 검토 후 즉시 이행 조치하고 10월중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2차 생생토론회를 추진한 후 철도 건설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품질실 관계자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 큰 보람 안전은 실천, 품질은 약속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철도취약개소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 총체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안전 대책을 추진하여 더 안전한 철도 건설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철도건설 '안전-품질 신문고' 서비스 개시

안전품질실(실장 석종근)은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철도건설을 위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온라인 '안전·품질 신문고'를 구축해, 9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안전품질실은 신문고를 통해 ▲철도 안전사고 및 품질 위험요소에 대한 제보 ▲철도사고 예방을 위한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신고자는 공단(www.kr.or.kr) 홈페이지 국민마당에 개설된 '안전품질신문고'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문고를 이용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호를 시행하며, 접수받은 내용은 공단 내 안전품질 부서의 조사 및 점검 후 현장에 적용 및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신고자의 안전·품질 등의 공익신고로 공단의 수익증대 또는 관계기관의 처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지침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석종근 안전품질실장은 “평소 생각하고 있던 철도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공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철도건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품질실은 현장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 및 방법을 제시한 클린 명함을 지난 17일 전 현장에 배부했다.

## 수원·화성시 철도 지하화 구간 공사착수

### -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52.8km 전 구간 착공 -

건설본부(본부장 김계용)는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 수인선)의 52.8km구간 중 수원시 고색동과 화성시 봉담면 철도지하화 구간 6.5km에 대해 지난 12일 주민설명회를 시행하고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 착공하는 구간은 과거 협궤철도로 운행하다 1995년 운행이 중지된 철도로 구(舊)수인선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수원시 구간 1.8km 및 화성시 구간 0.7km는 지하체가 비용을 부담해 철도를 지하화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지하철 상부는 시민공원으로 조성한다.

본부는 그 동안 지하화 변경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지 못했던 수원시와 화성시 구간을 착공함에 따라, 52.8km에 이르는 수인선 전 구간의 공사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으며 2017년 말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인 수원인 오이도-송도구간은 2012년 6월 개통했고, 2단계인 송도-인천구간은 2015년 말 개통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수인선 전구간이 완전 개통되면 분당선과 직결운행 및 인천역·수원역·원인역·오이도역 등에서 다른 노선과 환승이 가능함에 따라 수도권 서남부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간부직원 대상 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교육 시행

### - 청렴의 생활화에 박차를 가하다 -



기획재무본부는 지난 16일 임원을 포함한 부장급 이상 간부진 100명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입교해 청렴교육(INJOY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연수원의 INJOY(INtegrity+enJOY) 프로그램은 공단 내 청렴문화 확산을 이끌어갈 부장급 이상 간부진들의 청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으며 기존의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연극·음악 등의 재미를 가미한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본부는 지난 8월 임직원들의 행동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삽화형식으로 표현한 'KR인 클린10훈'과 9월에는 사소하다고 지나쳐버릴 수도 있는 사항에 대한 행동기준을 제시한 '임직원 행동지침'을 제정·공표한바 있으며 이번 청렴연수원 입교 교육과 함께 임직원들의 청렴의식 내재화 및 생활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김상태 기술본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은 어떤 시거나 사안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인지하게 되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도 본부는 청렴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생활 속에 청렴이 스며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